

지역 매아리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기안전교육원 이전 확정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은 "한국전 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이 정읍 신정동 첨단과학산업 단지로 이전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제 2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원건립협약 원안인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송호기 부사장을 만나는 등 충남 아산에 있는 교육원 정읍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항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 깊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면적 300여㎡의 부지에 3만 6000㎡ 규모의 교육원이 완공되면 연간 500명 정도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실습센터 건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읍발전의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정읍시농업기술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학교, 체험실습학교'를 9주에 걸쳐 운영했다.

교육은 예비 귀농인들이 알아야 할 농업 현황과 적합한 농산물 품목 선정방법, 지역민과의 유대관계 유지 방법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술센터는 정읍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의 사랑을 간직한 백제가요 정읍시의 고장이자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해 후대에 전한 고장임을 적극 홍보했다.

또 내달 14일 용산역에서 열리는 '2019~20 정읍방문의 해' 선포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이외에도 기술센터는 "다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는 가장 큰 농업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하지만 도시민 생활방식과 욕구에 맞는 농촌형 사업모델을 개발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읍시농업기술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 정착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신규 농업인으로서의 귀농인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 육성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수소 경제 활성화 견인

시·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 투자협약 체결

정읍시가 30일 (주)이도(대표 최정훈), 한강에셋자산운용(주)(대표 방희석)와 수소에너지 복합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소에너지 복합사업은 약 7천여원을 투자하여 지역 내에 100MW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발전소 건립 등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지역 인재를 활용,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주)이도가 주관하고 한강에셋자산운용(주)이 투자사로 참여한다. 시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기로 협약했다. 시에 따르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화력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전무해 환경 오염물질 발생이 적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8분의 1 수준으로 고효율 친환경 발전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또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도 다른 친환경 에너지 대비 강력한 잠재

력을 지닌 에너지원이다. 관련해 정부는 올해 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한 바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식량과 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된다면 에너지 자급자족에 크나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지난 29일 '뽀다 셀카봉' 민방위 SNS 홍보단을 발족했다.

"정읍안보는 '뽀다 셀카봉' 이 책임져요"

정읍시, 민방위 SNS 홍보단 발족

정읍시가 지난 29일 '뽀다 셀카봉' 민방위 SNS 홍보단을 발족했다. 시는 SNS 홍보단원으로 정읍시 여성민방위대 소속 지원민방위대원 30명을 선발해 위촉했다. SNS 홍보단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주민이 꼭 알아야 할 행동 요령을 전파하게 된다. 또 국가안보와 재난구조 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SNS 홍보단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국내외 민방위 사업을 셀카봉으로 촬영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 또 시·국가 기관이 제작 배포하는 영상홍보물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유튜브,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 SNS 인터넷 매체에 게시한다. 홍보단원들은 △국가비상사태,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전파 △민방위 경보,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의 전파 △시민들이 알아야 할 민방위 시책 등 시정 소식 전파 △평화통일·국가안보·재난구조의 올바른 정보 전달 △19~20 정읍방문의 해 등 지역의 문화관광 소개와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순조

부안군 건설교통과는 유관기관 지원 등으로 경지정리 구역 내 경작로를 현대화하여 생산성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6지

구에 12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비포장농로를 콘크

리트포장 함으로써 각종 농기계의 진입 진·출입을 편리하게 하여 토지 생산성 향상 및 신속한 영농활동 등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체계적인 농촌 물류유통망 확보, 사회 인프라 현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사랑상품권의 본격 유통을 앞두고 30일 고창군이 한국조폐공사와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군, 조폐공사와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업무협약 체결

오는 7월 고창사랑상품권의 본격 유통을 앞두고 관련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30일 고창군은 이날 한국조폐공사와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협약에 따라 행복상품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국민, 품목상권 편익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고창군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이날 지역 금융기관 15곳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15개 금융기관 각 지점은 상품권 판매 대행점으로 지정돼 고창사랑상품권 판매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지역에서만 현금처럼 유통·사용할 수 있는 상품

권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화를 통한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일제히 유통된다.

군은 구매자나 소상공인이 더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가맹점은 모집 중이며,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력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국 3대 해수욕장 명성 되찾는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 추진·제안서 공모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를 추진키로 하고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는 부안군 대항리 612번지 4만 3887㎡ 부지에 추진되며 제안서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전북교육수원원이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총사업비 207억원 규모로 변산해수욕장 인근에 추진되는 만큼 이번 관광

휴양콘도 민간투자자가 선정된다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내 상가 및 펜션 등의 민간투자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계기로 국내·외 잠재 투자의향자들을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해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때 전국 3대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변산해수욕장이 그동안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락했지만 이번 민자유치를 통해 다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Mulberry Wine on the left. On the right, there are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and a bowl of mulberries. The text in the center read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Below this, there i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wine and its benefits.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contents. The ad also includes the company name 'GANGSANMYEONGJU' and contact information.